

지능개발도서를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는가

두뇌운동 도움되는 건 사실이나 흥미로운 게임에 그치는 경우도 많아

“지능개발도서를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는가?” 일반독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는 실제적으로 어려울 듯하다. 독자마다 다양각색의 독서습관이 있고, 또 독자마다 각자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이 애매모호하다는 것도 위 물음에 대한 답을 어렵게 한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이 지능을 높인다는 뜻인지, 아니면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뜻인지 그 정체를 알 수 없다는 뜻이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말을 포괄적으로 생각해보면 주의력, 사고력, 언어능력, 계산능력, 상상력, 기억력, 공간지각능력, 관찰력, 추리력 등을 포괄해서 그러한 것들의 능력이 높아진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할 것이다.

시리즈로 마련된 유아용 지능개발도서 많아

우리의 교육열기에 비례해 현재 서점에는 지능개발이나 아이큐를 높여준다는 이름으로 많은 책이 나와 있고, 직접적으로는 대학수학능력고사를 대비한 각종 논리 시리즈가 독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분명 인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인식되고 있다. 책을 덜 읽는 사람보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더 활발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지적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한 분야의 도서만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지능개발용’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책을 독자층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그 폭이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 우선 유아들을 상대로 한 지능개발 도서는 삼성출판사의 ‘지능업’ 시리즈, 대웅출판사의 ‘IQ 쪽쪽 지능 쪽쪽’ 시리즈, 세진출판사의 ‘지능개발 영재학습’ 시리즈 등을 꼽을 수 있다.

지능개발용 아동도서는 대부분 색칠하기, 셈하기, 글짜 맞추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유아들의 지각능력을 향상시켜준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출판사 관계자들은 “유아용 지능개발 도서 경우 현직 유치원 교사들이 자문과 집필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유아들의 지능발달상황과 교육상황을 고려하여 펴내기 때문에 어린이들의 학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일반적으로 책을 읽는다는 행위는

인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인식되고 있다. 책을 덜 읽는 사람보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의 정신작용이

더 활발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책을 읽는다는 행위가

지적 작용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수한 분야의 도서

만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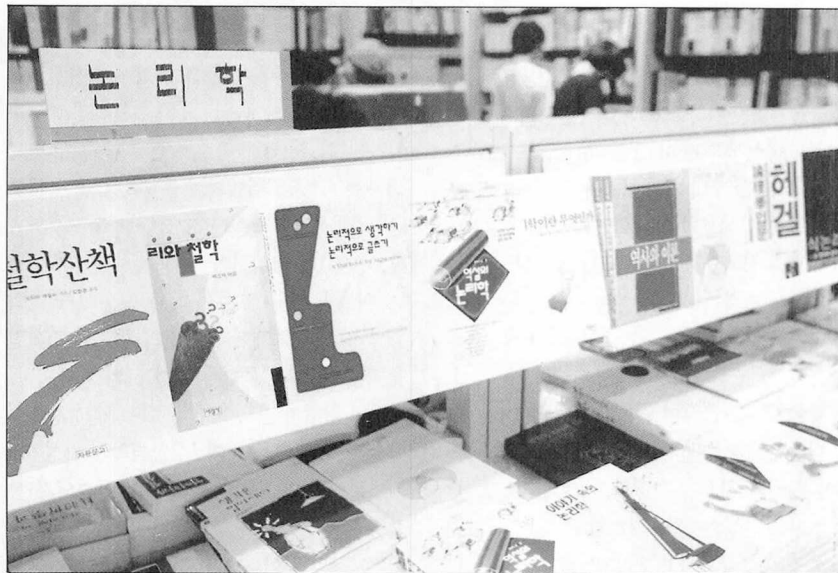
말은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출판사의 설명에 학부모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부천에 사는 유경숙씨(주부, 40)는 다섯살짜리 딸아이를 위해 지능개발 도서를 구입했다면서 “아이들이 직접 참가하는 형식으로 책이 엮여져 있어서인지 딸아이가 책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집중력도 생기는 것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강현주씨(경기도 구리 상업, 27)는 지능개발도서의 효용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편.

“우선 아이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것 같다. 내용 또한 거의 대부분의 책이 비슷해서 책을 선택하는 폭이 좁은 것도 단점이다. 아이들의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는 문구도 사실 믿지 못하겠다. 우리 아이(6세)가 유치원에서 배우고 있는 것을 복습한다는 뜻에서 이러한 책을 보게 할 뿐이다. 아이의 정서함양이라는 측면에서 시간이 허락되는대로 동화책 등을 읽어주고 있을 뿐이다.”

지능개발도서에 대한 천차만별의 생각은 비단 일반인들에게만 상존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적으로는 지능을 일반적로나 배타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갖는 심리학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지능적 성취에 작용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다소 많은 수의 요인을 헤아려 내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그것이 어떤 요인인지 또 그것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치점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강봉규, 「심리학요론」 정훈출판사)

일반적으로 지능은 추상적 사고능력, 학습능력, 적응력, 종합적 전체적 능력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 이러한 요소를 모두 만족해주고 있는 지능개발도서는 드물다는데 문제가 있다



특정 도서만이 머리를 좋게 한다는 말은 옳지 않은 듯하다.

고 할 수 있다.

재미는 있어도 ‘지능개발’에는 의혹

국민학생을 비롯해서 중고생 일반인들을 폭넓게 독자층으로 해서 출판되고 있는 지능개발 도서들은 거의 대부분이 넌센스퀴즈, 미로 찾기, 단어맞추기 등으로 짜여져 있다. 이들 도서는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풀 수 없는 문제들로 짜여져 있으면서 동시에 유머를 가미, 문제를 풀면서 재미를 느끼도록 하고 있다.

서점에서 퀴즈도서를 보고 있는 독자들도 “재미로 본다”거나 “약간의 상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할 뿐 그러한 도서들이 지능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고 있다. 물론 이들 도서들이 사고의 반전을 통해 두뇌운동에도 도움을 주기는 하지만 일반독자들 대부분이 그에 대해 신뢰성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필자로 참가한 사람들이 심리학이나 관계학문을 연구한 전문인이 아니라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즉 도서의 기획방침이나 서술방향이 전적으로 두뇌개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흥미본위로 정해지게 된다는 것.

한편 최근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논리학에 관한 도서들은 철학적 사고의 기틀을 마련해주고 있는 동시에 논리적인 사고를 이끌도록 기획되어 있어 지능개발도서의 좋은 본보기로 삼을만하다.

위기철씨가 세권으로 묶어 펴낸 도서출판사계절의 논리시리즈를 비롯해서 「이야기속의 논리학」(김득순, 새날) 「재미있고 알기쉬운 생활속의 논리학」(정경임, 지양사) 등의 국내

저작물 이외에 번역서로 「역설의 논리학」(노자끼 아끼히로, 새날)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논리적으로 글쓰기」(앤소니 웨스턴, 공간)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레이먼드 스멀리언, 자유사상사) 그리고 위기철씨가 엮은 「생각은 힘이 세다」(청년사) 등이 모두 논리학을 바탕으로 사고의 폭을 넓혀주는 책으로 비쳐진다.

개인편차에 따라 유용성 달라져

그러나 정작 이와같은 책은 지능개발용으로 꾸며진 도서들이 아니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학습에 커다란 효과를 주고 있는 책도 아니다. 위기철씨의 논리 시리즈를 다 읽었다는 김지연양(송곡여고 1년)의 소감이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철학의 세계를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어서 좋다. 이러한 책을 바탕으로 여타의 것들을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만 같다. 친구들 중에는 대학입시용으로 이 책을 읽고 있는데, 당장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이러한 논리학을 다룬 책들이 절대적으로 머리를 좋게하는 책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책을 받아들이는 편차가 개인적으로 모두 다르고, 그 영향관계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J.W. Getzels와 P.W. Jackson이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 창의적 연구활동을 하는 사람과 지능은 거의 관계가 없다고 한다. 더구나 화가, 조각가, 디자이너와 같은 예술적 창의성과 지능은 더 작은 관계밖에 없다는 것이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책과 독자의 지능의 관계는 예술적 창의성과 지능의 관계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이성수 기자